

새 책

▶북극독립서신(문창길 지음)=시인은 지난해 남북 정상을 계기로 민족문학의 새로운 전망과 문학적 통합성을 주제로 삼고 이 시집을 냈다. 일본군 성노예 할머니와 금정굴 학살사건, 외국인노동자, 분단과 통일, 광화문 촛불, 고 노무현 대통령 등을 소재로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시로 풀어냈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민간공보 지원사업에 선정된 시집이다. 대한민국 들꽃세상. 8000원.



▶바쁨과 헤어지는 중입니다(이본텔리 지음, 이미숙 옮김)=우리를 바쁘게 만드는 이유와 유형을 다양한 면에서 살펴보고 바쁨에 휘둘리는 동안 우리의 삶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들여다 본다. 모든 일을 제대로 빨리 완벽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고 있음을 지적하고, 삶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바쁨과 헤어지는 맞춤형 해결책도 제시한다. 북스힐. 1만3500원.



▶그 여름, 그 섬에서(다이애나 마컴 지음, 김보람 옮김)=로스앤젤레스 타임스 기자인 저자는 취재자 켈리포니아 외곽에 정착한 아조레스 이민자들을 만나면서 대서양 한복판의 섬에 대해 알게 된다. 이들의 초대로 아조레스를 방문한 저자는 아조레스와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으기 시작했다. 상실의 아픔을 바탕으로 위트를 구사하고 긍정적인 섬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볼 수 있다. 흐름출판. 1만5000원.



▶나인폭스 캠티(이윤하 지음, 조호근 옮김)=‘SF계 노벨문학상’으로 불리는 휴고상에 3년 연속 최중 노미네이트된 한국계 미국인 저자의 작품이다. ‘구미호 설화’를 모티브로 한 주인공을 등장시켜 여성과 남성의 경계를 무너트리고, 기술적으로 신체의 성별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는 세계관력을 자극한다. 동아사이. 1만7000원.



▶중국의 신사계급(페이샤오통 지음, 최만원 옮김)=중국이 낳은 세계적 사회 인류학자이자 중국 사회학의 비조인 저자는 중국에서 중앙집권제가 설립된 기원전 3세기부터 민국시대 초기까지 지식을 독점한 신사계급의 역할과 변천 과정을 설명한다.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지키기에 급급했던 특별한 비판이다. 갈무리. 1만6000원.



▶배려의 대화(조완옥 지음)=배려가 담긴 말은 정제된 생각을 거쳐 부드럽게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안경감과 위로감을 주고 사람들을 끌어들이는다. 그러나 함부로 말을 하는 사람에겐 다가서기 힘들다. 국민들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는 정치인의 막말,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지 않는 이기적인 말로 인한 갈등 등 현실에 안타까움을 갖고 있던 저자가 배려를 주제로 한 도서를 기획하고 집필했다. 함께북스. 1만4500원.



표성준기자 sjpjo@ihalla.com

문학으로 그려갈 다시 꿈틀대는 공동체

김동운 평론가의 ‘문학으로 만나는 제주’

설문대에서 이어도까지 문학통해 삶·문화 성찰

문학과 제주를 말하기 전에 그는 묻는다. “제주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왔을까?” 제주를 품은 문학에는 태곳적부터 오늘날 제주국제자 유도사까지 기나긴 제주 역사가 스며있기 때문이다.

천지창조신화가 담긴 천지왕본풀이, 땅에서 세 신인(神人)이 솟아났다는 건국시조신화, 날개달린 야기장수를 죽이지 않고 날개만 잘라 흰색 장사로 살아가도록 하는 장수전설은 섬 제주의 문화가 한반도와 유대한다는 점을 일러준다. ‘탐라’라는 독자적 정치체를 지녔던 ‘섬나라’가 ‘건년 고을’이라는 뜻의 ‘제주’로 바뀌고 일제강점기, 제주4·3을 거치며 겪은 수난 역시 제주 문화에 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문학평론가인 김동운 제주대 교수의 ‘문학으로 만나는 제주’는

그 여정을 따라 제주 신화와 전설, 역사와 현실, 삶과 문화를 다룬 문학들을 짚었다. 그동안 그가 학술적 접근이나 현장 비평으로 제주문학을 논해왔다면 이번에는 지난해부터 제주대 교양과정으로 개설된 ‘문학으로 만나는 제주’강의를 바탕으로 좀 더 대중적인 인문교양서를 묶어냈다.

문충성의 시 ‘제주바다 1’로 열리는 이 책은 설문대할망, 자청비, 서련 판관, 이형상 목사, 김만덕, 배비장, 이어도, 4·3 항쟁, 제주어, 원도심 이야기까지 닿는다. 제주문학의 대표적인 작품들을 살피면서 제주의 인문 환경과 섬 사람들의 현실을 이해하고 성찰할 수 있도록 짜였다.

이 과정에서 김 교수는 제일 김석범 소설가를 포함 강덕환 고정국 김경훈 김석희 김수열 양중해 이명인 조중현 최현식 현기영 현길인 등 제주 작가들이 발표한 시와 소설을 불러냈다. 문학적 상상력으로 그려낸 세계는 그 시대 제주의 현



실을 응시하고 있었고 때로는 역사적 진실을 앞서 밝혀냈다.

지금의 제주문학은 어떤 모습일까. 김 교수는 김광렬의 시 ‘대숲에서’를 인용해 “이제 제주섬의 운명을 주도면밀하게 점검함으로써 바람직한 전망을 도출해내야 할 시점”이라며 다시 꿈틀대는 제주섬 공동체에 주목했다.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려는 제주섬은 푸르게 울창한 대숲을 꿈꾼다. 뻗뻗이 우거져 몸 비비면서 살아가려 한다. 어우러짐 속에서 두 눈을 부릅뜨고서 곳곳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려 한다.” 한그루. 1만9000원.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더 나은 세상 위해 타인 이해하는 나침반

엘리자베스 A 시겔의 ‘사회적 공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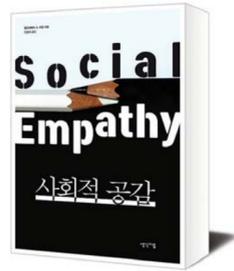
에리조나 주립대 교수인 저자는 인지신경과학에 기초해 개념화한 ‘사회적 공감’이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공감’에 관한 폭넓은 이해를 제공한다. 사회적 공감은 타인의 감정과 행동을 읽고 이해하는 개인적 능력, 인간의 행동이 일어나는 상황과 역사, 다른 사회집단의 경험을 혼합한다. 이 책 ‘사회적 공감’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사회적 공감을 타인을 이해하는 나침반으로 제시한다.

저자는 공감을 개인적 공감과 사회적 공감 모두를 포함하는 폭넓고 중요한 개념이라고 정의한다. 개인적 공감은 대중적 차원이거나 매체에서 흔히 사용되는 개념이며, 사회적 공감은 개인적 공감에 토대를 두지만 다른 무엇보다도 세상을 보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저자는 사회적

공감을 하려면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우리와 외모가 다르고, 우리 주변에 살지 않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 서야 한다.

공감은 특히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력자에게 영향을 미쳐 유익한 정책을 시행하게 만든다. 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 루즈벨트 대통령 내각의 일원이던 프란시스 퍼킨스는 많은 노동개혁을 이끌며 사회보장법을 만들고 아동노동 금지조항이 포함된 공정근로기준법도 통과시켰다. 특권층 가정에서 자랐지만 대학시절 공장에서 여성과 아동의 노동조건을 직접 목격한 경험을 통해 공감적인 시각을 갖게 됐기 때문이다.

반면 인종, 외집단, 아웃사이더 같은 타자성에 대한 언급은 자기 집단을 결속시키는 수단이지만 이런 타자성에는 외부집단에 대한



악마화를 수반한다. 이는 ‘우리대 그들’의 사고방식을 만들고, 우리가 단결해 그들과 싸워 물리쳐야 생존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든다. 지난해 예멘 난민들이 제주에 밀려들었을 때 사회에 퍼진 흉흉한 소문들을 떠올리면 이해할 수 있는 말이다.

저자는 강한 공감 능력을 발전시키면 다른 사람과 집단을 보는 방식이 바뀌고 서로 교류하는 방식도 바뀔 수 있다고 말한다. 엘리자베스 A 시겔 지음, 안종희 옮김.

이 책 열두 살 작가 전이수 에세이



에세이에 실린 전이수 군의 그림으로 열두 살 소년이 바라본 세상이 담겼다.

“선물같은 제주에서 모두를 꿈꿔요”



그 아이의 가장 큰 꿈은 세상 어느 누구도 배고프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일이다. 어딘가에 사는 친구들이 굶주린 배를 부여잡고 울음을 참으며 잠이 들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그림 영재’로 불리는 ‘열두 살 동화작가’ 전이수의 에세이 ‘마음

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는 ‘함께 살아가는 우리’를 꿈꾼다는 말로 책장이 열린다. 동생 우태의 시와 그림도 수록된 이 책에는 아이의 시선으로 어른들이 만들어온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는 모두니까”를 헤아려보자는 글들이 그림과 어울려 실려있다.

전이수 군은 제주에 산다. “제주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미소가 지어지고 바람이 나뭇잎을 간지럽히는 곳”(‘내가 사는 곳, 제주도’)으로 “바람이 내 몸을 닿았을 때 느껴지는 그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를 알게 해주는” 땅이다. “아름다운 선물”을 안겨주는

제주에서 그는 일상에서 마주하는 자연과 사람, 때로는 영화를 통해 배우고 느낀다. ‘내 흙은 잘 보이지 않는데 남의 흙은 너무나 잘 보인다’ 등 40여 편에는 상처받은 존재를 위로하고 “진짜 내가 되자”는 다짐이 있다.

그 중에서 전이수 군의 곁에 머무는 가족들은 더 깊은 사랑이 무엇인지 일깨워주는 이들이다. “내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표현된 엄마는 형제들이 싸우면 모두가 좋은 쪽으로 화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아빠는 영화 ‘빌리 엘리어트’의 아빠처럼 ‘나의 꿈’을 인정하고 지지해준다. 자신의 기쁨보다 다른 사람의 기쁨에 더 행복해하시는 할아버지를 만날 때면 가슴이 따뜻해진다.

동생 우담을 통해선 밝고 따뜻한 말이 그 어떤 어둠고 화난 말도 이긴다는 걸 알게 된다. 그래서 뒤이어 쓴다. “마음이 제일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사랑은 그 안에 있었다고 생각한다.” 김영사. 1만1800원. 진선희기자



# 제제 불교문화강좌

제주에서 만나는 제라한 불교문화해설

## 2019.09.21 ~ 11.23

### 매주 토요일 14:00 ~ 16:00

**강의일정** 총 10강

9월21일	자현스님	10월26일	강소연 교수
9월28일	자현스님	11월 2일	목경찬 교수
10월 5일	고승희 교수	11월 9일	목경찬 교수
10월12일	고승희 교수	11월16일	이상현 소장
10월19일	강소연 교수	11월23일	이상현 소장
11월30일	자현 스님과 함께하는 경주지역 불교유적답사		

장소 선덕사 설법전 서귀포시 516로 771번길 64 (상호동)

참가 선착순 20만원

문의 010-3691-6724 / 064-732-7677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선덕사

주관 대한불교청년회 제주지구

후원 문화재청 불교TV

